****

**올바른 길 찾기**

많은 사람들처럼, 메그 슈만 목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그녀 인생에서 바른 경로를 찾는 데 말입니다.

2007년 피츠버그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메그는 "매우 긴 여정"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. 그녀는 졸업 후 안수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진로를 택했는데 교회법이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

"졸업 후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"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. "어느 날 보호소 계단을 내려가면서 교회가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. 참담했지요."

머지않아 메그는 그녀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의 [마켓 스퀘어 장로교회](https://www.marketsquarechurch.org/)의 지도 하에 안수 절차에 다시 들어갔고 펜스테이트 헬스 허쉬 메디컬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. 이후 그녀는 알라배마주 버밍햄 아동병원의 전임 요청을 수락했고, 그곳에서 2018년 안수를 받았습니다.

일은 아주 잘 맞았지만,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일 년이 조금 더 지나 메그는 해리스버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.

"나는 소명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어요"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"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. "코비드가 발생했지요. 그저 돈을 좀 벌기 위해 커피샵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마켓 스퀘어 교회에서 임시 목회직을 맡았어요. 코비드로 커피샵이 문을 닫았을 때 정상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진정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걸 알게 되었죠."

칼라일 노회의 임시 노회 총무인 쉐릴 게일런 목사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. "메그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, 그녀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를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. 나는 즉각 [장로교 연금국](https://www.pensions.org/)의 [보조 프로그램](https://www.pensions.org/your-path-to-wholeness/assistance-program)을 생각했습니다. 그녀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메그는 비상 보조기금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."

이제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어, 메그는 그녀의 다음 소명을 찾는 데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

메그는 자신의 여정에서 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와 더불어, 토마스 머튼의 "머튼 기도" 덕분에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 기도에서 머튼은 그가 가는 길은 모르나 주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은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.

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덕분에 메그는 이제 그 길, 즉 바른 길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.

"장로교인 여러분들의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.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하나님이 부르신 메그와 같은 이들에게 지원과 부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"라고 임시 노회 총무인 게일런 목사가 말했습니다. "이러한 기부는 꼭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나타냅니다."

기쁨의 성탄절 특별 헌금에 아낌없이 기부해 주십시오.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
***기도합시다.***

*오 주님, 당신의 도움에 이르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소서. 우리 삶에 희망의 문을 열어 주소서.* ***아멘****.*